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9월 26일)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수계·기부 비대면 언택트 불교 '성큼'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본사 국장단회의 비대면 진행
대불련 온라인 합동 수계법회
조계사는 언택드 기부도 추진
포교원 화상회의 매뉴얼 배포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불교 안으로 성큼 다가왔다. 종무행정 회의부터 전법포교 현장, 기부까지 전분야에서의 확산이 눈에 띈다.

먼저 종무행정에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성공)는 11월 3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부터 연기해온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단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사회부는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불교사회봉사단 조직에 대해 논의했으며 10개 지역을 선정, 교구본사 연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회부의 화상회의는 7월 7일 조계종 포교원의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단 회의의 온라인 진행에 이은 것으로 현재 조계종은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사찰 스님들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사찰과 신행현장에서도 퍼져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무각)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윤정은)는 10월 31일 '제2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열린 수계법회는 30여 대학 70여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계를 받았는데 법회에는 전계사인 공생선원장 무각 스님 외 지도법사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과 수계자 대표 3명만 참석했다. 온라인 참여자들은 화상회의로 동참했으며 연비를 대신해 연꽃모양 타투스티커를 붙였다.

이처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자 사찰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1월 5일 조계사 백주년기념관 내 관음전에서 주지 지현 스님, 이명구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기부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조계사 전용 기부 사이트를 개발해 11월 12일 공개한다.

개발되는 조계사 기부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없이 휴대폰 인증 후 바로 기부할 수 있다. 특히 URL과 QR코드로 조계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에 활용 가능하다.

김광민 신한은행 디지털사업부 부부장은 "기부 사이트 개발은 조계사가 종교계 최초"라며 "불자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실현과 사회공헌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계사는 이번 사이트 운영과 함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경내에 신행활동 정보와 기도 동참, 기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터치 키오스크(무인단말기)도 설치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언택트 비대면 사이트나 기기 활용은 단순히 시대 상황에 따른 임시방편을 넘어 새로운 사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조계사에 오시기 힘든 분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하고, 경내에서는 무인장치로 많은 이들이 쉽게 사찰 정보를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문화가 불교 안팎으로 확산되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배포했다.

웹자료와 동영상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매뉴얼로 다중송출 방식으로는 '줌(zoom)' '구글 미트(Google Meet)', 단일송출 방식으로는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YouTube)' '네이버밴드 라이브방송' '카카오톡 라이브톡'이 안내됐다. 현재 자료는 조계종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조계종 포교원'에서 볼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비대면 방식 법회나 신행활동을 하려고 해도 아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불자들이 많다. 키오스크, 기부사이트, 프로그램 활용에 있어 사찰과 언론을 활용해 불자들에게 친절히 안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 진행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비대면 방식의 불교계 활동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기존 대면 방식과 더불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할 것"이라며 "온라인 전법, 포교 방편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풍 고운 만추의 길상사 부처님 말씀에서 한 치도 어긋남 없는 오늘을 맞는다. 서늘해진 바람을 따라 나뭇잎은 붉어지고 짧아진 햇살 속에서 하늘은 깊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힘겨운 가을을 맞는다. 단풍이 짙어가고 하늘이 깊어가는 이유처럼 코로나19도 부처님 말씀 어딘가에 그 이유가 있으리라. 법정 스님과 깊은 인연을 간직한 서울 길상사도 가을이 깊다. 10년째 법정 스님의 발길을 볼 수 없는 오늘, 선지식의 한 말씀이 그리워지는 가을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계종 후반기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중앙종회 정기회서 만장일치로
부의장에 각림 · 만당스님 선임
종정 감사로 휴회… 12일 속개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4선 중앙종회의원 정문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부의장에는 3선 중앙종회의원인 만당 · 각림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9회 정기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원 구성 등을 진행했다.

중앙종회는 후반기 의장에 4선 의원 정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수석부의장으로는 3선 의원 각림 스님이, 차석부의장에는 3선 의원 만당 스님이 각각 선출했다. 후반기 중앙종회 사무처장으로는 재선 의원 우봉 스님이 추천돼 만장일치로 임명 동의됐다.

선출 직후 후반기 의장 정문 스님은 "중앙종회는 종헌종법을 수호하는 입법기구이자 종도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중추적 역할을 하며 종단 발전을 견인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 종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활동과 종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후반기 상임분과위원 배정과 분과위원장 선출도 진행했다. 또한 인사심의위원장에는 태효 스님이 선임됐으며, 위원은 새로 배정된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키로 했다.

한편,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했으며, 11월 12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속개된 종회에서는 불기 2556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을 비롯해 △종법 제개정의 건 △종무보고 △종책질의 △원로의원 추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창립 30돌 연꽃마을, 신사옥 시대 '활짝'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창립자이자 불교 노인복지 선구자였던 故 덕산당 각현 대종사의 원력을 이어 불교복지 미래를 새롭게 견인하기 위한 도약을 시작한다. 그 일환으로 법인 역사상 첫 사옥을 마련하는 한편, 70여 개 산하시설과 2400여 직원을 통솔하는 조직구조 개편 및 체계화, 창립자인 각현 대종사의 원력을 재조명하는 계승사업 등을 동시에 일궈내며 향후 불교복지 30년을 열어갈 새로운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연꽃마을(이사장 원상)은 11월 19일 연꽃마을 법인 사옥 준공식을 봉행한다. 연꽃마을 창립 이래 법인 사옥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옥에는 법인 사무국 뿐 아니라 각현 대종사 추모기념관과 연화사 법당이 자리한다. 무엇보다 사옥은 연꽃마을이 태동한 곳이자 첫 시설인 용인노인요양원이 위치한 용인구 처인면에 자리해 상징적인 의미도 적지 않다.

이날 법회에서는 창립자인 덕산당 각현 대종사를 추모하고 생전 불교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숭고한 원력을 기리는 법석도 마련된다. 〈관련인터뷰 A3〉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출판사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전화 02-720-6107~9 | 불교전문서점(www.jbbook.co.kr) 02-2031-2070~1

상월선원
천막결사 90일간의 이야기
자 무 진 성 호 재 심 도 인
승 연 각 곡 산 현 우 림 산

풍찬노숙 천막결사,
한국불교 희망을 말하다!

굳게 닫혀있던 문 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90일 동안 씻지 않고 일종식을 했는데, 그 얼굴은 뜻밖에도 환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여위고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뒤덮였지만 결기에 찬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머리글 중에서